

국립중앙도서관 所藏 科試 資料의 현황과 의미*

김 광 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의
현황과 그 특징
- III. 주요 자료 소개
- IV. 과시 자료 연구의 몇 가지 과제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23년 동양고전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22S1A5B5A16055704).

<논문 요약>

이 논문은 조선 시대 과시 자료의 외연을 넓히고 현전 과시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를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주제별로 연구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소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약 8만 6천여 종에 이르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문헌 중에서 약 200여 건의 과시 자료가 확인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는 개별 작품 선집에서 유초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망라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科詩와 科策, 科賦, 科表 선집의 비중이 크고 필사본 자료가 중심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중 과책 선집인 『龍庭大對』는 16-7세기 우수 대책들만을 모아 놓아서 연구의 가치가 크다고 평가된다. 『科試分韻』은 거질의 과시 선집으로 조선 후기 과시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四書疑 선집인 『東疑』는 사서의 문제와 답안 자료와 함께, 답안에 대한 평문이 난외에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독특한 의의를 지닌다. 과부 선집인 『衆芳』은 시험 정보가 매우 상세하였고, 類抄集인 『科程』 등은 다양한 對句들을 주제별로 분류 수록하여, 과거에서의 駢儷文을 작성하는데 유용한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驪州李氏科第錄』은 편저자가 분명하고 서문을 갖춘 과문 선집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한가문 내에서의 과시 학습과 전승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향후 과시 자료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조선 시대 과거 문화사를 좀더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科試, 科舉, 科文選集, 國立中央圖書館, 龍庭大對, 科詩分韻, 東疑, 衆芳, 科程, 功令要抄, 儷彙, 驪州李氏科第錄.

I. 머리말

조선 시대 500여 년 동안 과거는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인재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과거 합격은 지식인층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경로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과거가 거듭 시행되는 동안 擧子들은 조금이라도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자 이리저리한 요령을 개발하여 시험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科試 자료들이 제작되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 우리가 조선 시대 과거 문화사를 온당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과시 관련 자료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까지도 과시 자료 자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적은 편이었고 개인 차원에서의 조사 및 정리의 한계 등으로 인해 오늘날 각급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해 오고 있는 방대한 양의 과시 자료에 대해서는 그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근래에 들어서야 비로소 과시 자료의 현황 파악에 대한 요구가 구체적인 수집 및 정리 작업으로 이어지게 되면서¹⁾ 과시 자료 자체에 대해서도 산발적이기는 하나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고 있다.²⁾

1)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선 시대 科試 자료의 DB구축 및 수사 문체와 논리 구축 방식의 변천사 연구>(2019.09.~2025.08)는 조선 시대 과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는 최초의 집단 연구로서 대표성을 지닌다. 이 연구의 진행과 더불어 조선 과시 연구는 이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쌓아 오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연구 지원 사업에서도 과시를 주제로 한 연구 과제들이 채택되어 개별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과시 자료에 대한 연구는 202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상술한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과 관련이 깊다. 최근 10년 간의 선행 연구 성과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발표 연도 역순). 노요한·김민구·남윤지·송채은, 「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과시 자료 소개」, 『한문학논집』 62집, 근역한문학회, 2022; 박선이, 「조선 후기 科試 참고서 『表東人』에 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 62집, 근역한문학회,

필자는 과시 자료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과시 자료를 선별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논문은 그 결과에 대한 보고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중 연구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선별하여 분야별로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선 시대 과시 자료의 활용 양상 및 과시 자료의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방안도 思索해 보았다.

II.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의 현황과 그 특징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서관 소장 자료들 중에서 과시 관련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가려 내야 한다. 기존에 충실한 목록 조사 및 해제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검색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자료를 추출해낼 수 있겠으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의 경우 기초적인 서지 사항만 조사되어 해당 자료의 성격을 자료를 직접 열람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2; 송채은, 「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科表抄 『東林』에 대하여」, 『고전과 해석』 37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22; 이상욱, 「조선후기 과부 참고서와 공부 방법 : 『騷賦彙芳』과 『小大由之』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72집, 대동한문학회, 2022; 김경, 「조선후기 남인계 과제시집 『近藝雋選』 연구」, 『민족문화』 57집, 한국고전번역원, 2021; 박현순, 「조선후기 과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 규장각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83집, 한국한문학회, 2021; 김광년, 「정조-순조 연간의 과문집 『臨軒科命』 연구」, 『동양고전연구』 80집, 동양고전학회, 2020; 심경호,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 편제 상황」, 『동양고전연구』 80집, 동양고전학회, 2020; 박선이, 「조선후기 科文選集 『儷林』에 대하여 : 자료 개관 및 가치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JKC 50집, 한국언어문학학술확산연구소, 2020; 이상욱, 「조선후기 科策 참고서의 작법 요령 : 『策型』과 『駢儷華藻』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2집, 열상고전연구회, 2020; 박현순, 「조선 시대 과거 수험서」, 『한국문화』 69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등.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문헌 8만 6천여 건³⁾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과시 자료를 추려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문헌 중에서 절반 가량인 4만여 건은 온라인 원문 이미지가 구축되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고, 약 8% 내외에 해당하는 7천여 건은 해제 작업이 이루어져 있어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략적인 문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필자는 우선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위주로 과시 자료를 별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자료 조사 과정에서 온라인 원문이 없는 자료들의 경우는 주기사항이나 해제 등을 통해 과시 자료임을 확정할 수 있거나 표제를 통해 과시 자료임이 확실한 경우⁴⁾ 등을 목록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아래에 간단한 도표로 제시한다.⁵⁾

연번	분류	서명	형태사항	청구기호	비고
1	과부	[科賦]	1冊; 17.1x8.8cm		
2	과부	[科賦]	1冊; 18.9x10.4cm		
3	과부	看看記	1冊(28張):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18.0x11.7cm	성호古3643-589	
4	과부	古賦東	51張; 27.3x20.6cm	한古朝45-가16	
5	과부	金聲	1冊(47張):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19.2x12.0cm	성호古3649-183	星湖家舊藏
6	과부	金聲	1冊(34帖): 行字數不同; 1.0x5.5cm	古6024-148	
7	과부	東賦	1冊; 21.5×13.2cm		

- 3)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http://nl.go.kr/korcis>)에서 소장처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지정한 결과로 총 86,660건이며, 실제 수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4) 예컨대 ‘科詩’, ‘科策’ 등 표제가 ‘科’로 시작되는 도서들의 경우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과시 자료임을 확정할 수 있다.
- 5) 복사본의 경우(원본은 다른 기관 소장)는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자료가 70여 건 가량으로, 이들은 도표 맨 마지막에 연번 없이 附記해 두었다. 이들은 표제를 통해서 과시자료일 것으로 짐작되는 것들이다. 향후 실물 조사를 통해 보완할 것을 기약한다.

8	과부	東賦	1冊(33張); 26.7x17.5cm	古3643-709	
9	과부	東人雜賦	1冊; 29.5x19.0cm	의산古3649-91	
10	과부	登龍門	1冊(80張): 無界, 12行字數不同 註雙行, 無魚尾; 24.9x15.3cm	古606-2	
11	과부	賦 冊1-9	9冊: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23.8x15.8cm	古貴3643-16	
12	과부	賦東	48張; 24.2x14.4cm	한古朝26-42	順庵家 구장
13	과부	賦東人	1冊; 20.0x14.0cm	동곡古3716-36	
14	과부	賦東人	1冊(73張); 12.4x8.5cm	동혼재-95	
15	과부	西湖	69張; 23.8x15.8cm	한古朝45-가13	순암가 구장
16	과부	陸庠賦	96張; 23.2x19.7cm	한古朝45-가257	
17	과부	盈科	2冊: 無界, 大言詩, 21句-25句; 24.0x21.5cm	古606-10	
18	과부	龍馬	1冊(60張): 12行18字, 無魚尾; 23.8x19.5cm	古3716-41	
19	과부	箭. 1-4	4冊: 24行字數不同; 29.1x18.2cm	古3716-66-1-4	
20	과부	箭箭中 : 外 傳	1冊(46張): 10行34字, 註雙行, 無魚尾; 30.5x18.1cm	古2220-5	
21	과부	衆芳	80張; 27.7x18.2cm	한古朝45-16	
22	과부	採蓮	59張: 行字數不同; 23.1x11.8cm	古3716-63	
23	과부	楚餘	74張: 行字數不同; 22.5x11.7cm	古3716-64	
24	과부	含音	50張: 行字數不同; 17.8x11.3cm	古3716-60	
25	과시	[科詩]	1冊(101張); 20.7x7.3cm	慶州李氏 鶴南亭(이혁희) -57	慶州李 氏家 구장
26	과시	甲科 乙科	2冊; 20.8x19.4cm	古6024-225	
27	과시	古東文	1冊; 26.5x23.0cm	의산古3643-157	
28	과시	科詩分韻	12冊; 25.5x17.0cm	한古朝45-가258	
29	과시	科詩草	1通; 37.7x23.7cm	古朝26-80	
30	과시	葵日	1冊(75張): 無界, 14行21字, 無魚尾; 14.4x12.2cm	성호古3643-591	성호가 구장
31	과시	近藝偶選	1冊(99張): 無界, 3段 7行21字 註雙行, 無魚尾; 21.0x15.7cm	古3643-408	
32	과시	錦繡	99張; 24.5x15.2cm	null3643-681	
33	과시	洛珠	30張; 14.8x18.9cm	古3643-695	
34	과시	東鳴	72張: 行字數不同; 21.4x13.8cm	古3643-659	

35	과시	東選	50張; 29.3x20.8cm	古朝45-가451	
36	과시	東詩	2冊; 23.7x15.8cm	한古朝45-가359	
37	과시	東詩	1冊(115張): 行字數不同; 24.4x19.3cm	古3643-337	
38	과시	東人	2冊: 行字數不同; 19.1x19.6cm	古3643-626	
39	과시	東人詩抄	67張; 29.5x17.7cm	古朝45-가445	
40	과시	驪珠抄	1冊; 18.0x12.0cm	의산古3643-156	
41	과시	師	2冊; 28.0x17.3cm	한古朝45-가24	
42	과시	私草	30張; 15.0x14.0cm	의산古3643-153	
43	과시	先覺	1冊(148張): 無界, 七言古風, 15-18首; 28.0x21.5cm	古606-9	
44	과시	善鳴	1冊(41張); 18.5x13.7cm	우촌古3644-122	
45	과시	隨珠	1冊(75張): 無界, 14行21字, 無魚尾; 15.5x11.7cm	성호古3643-641	성호가 구장
46	과시	陸庠詩抄	118張; 18.3x15.3cm	한古朝45-가281	
47	과시	言志	48張; 23.8x18.7cm	古3643-729	
48	과시	驪珠	1冊(40張); 29.8x18.3cm	古3643-415	
49	과시	玉藻	30張; 21.1x9.4cm	古3643-730	
50	과시	玉振	1冊(53張); 16.2x14.3cm	古3643-699	
51	과시	由基箭	不分卷1冊(122張): 行字數不同; 17.0 × 13.1cm	古3710-38	
52	과시	牖中月	1冊(163張): 無界, 段古風; 23.5x20.8cm	古606-7	
53	과시	自愛		古朝26-81	
54	과시	折桂	80張; 23.2x11.4cm	古朝45-가442	
55	과시	增式詩	123張; 24.2x14.0cm	승계古3643-131	
56	과시	採玉 : 東人 詩選	1冊(26張): 無界, 14行21字 註雙行, 無魚尾; 26.5x18.8cm	古3643-378	
57	과시	波斯寶	1冊(60張): 14行21字; 24.8x21.8cm	古3643-331	
58	과책	杠筆	85張; 26.4x18.8cm	한古朝31-69	
59	과책	科文	1冊; 23.2x18.4cm	古605-6	
60	과책	科策	6冊; 31.1x19.9cm	古朝44-가89	
61	과책	丹墀對策	21張; 26.3x21.7cm	한古朝31-481	宜寧南 氏家 구장
62	과책	丹墀獨對	35張; 25.3x21.9cm	한古朝31-482	
63	과책	大對	1冊(72張); 26.7x18.2cm	한古朝31-70	순암가

					구장
64	과책	大放四	31張; 17.4x19.9cm	古3649-218	
65	과책	對策	31張; 36.2x21.5cm	古3652-22	
66	과책	對策	1冊(30張); 31.5x19.0cm	古3652-31	
67	과책	對策遺稿	75張; 31.5x22.0cm	한古朝31-416	
68	과책	東國壯元策	1冊(101張): 四周單邊 半郭 18.4x11.0cm 有界, 13行17字, 黑口, 內向黑魚尾; 24.0x14.4cm	일산貴6024-7	
69	과책	東人策選	不分卷1冊(50張): 四周單邊 半郭 18.1 x11.1cm, 有界, 13行17字, 上下黑口, 內向黑魚尾; 24.0cm	古3647-1	
70	과책	東策	1冊(98張); 39.2x25.1cm	古606-32	
71	과책	東策	1冊(81張): 無界, 36行字數不同; 22.0x35.6cm	古606-6	
72	과책	東策精粹.上, 下	2卷2冊: 四周單邊 半郭 21.3x14.2cm, 有界, 11行20字, 大黑口, 內向3葉花紋魚尾; 25.9x18.5cm	한貴古朝31-137	
73	과책	小策	141張; 27.0x17.7cm	古朝26-41	
74	과책	試策	69張; 25.8x16.8cm	古606-19	
75	과책	御試策	59張: 四周雙邊 半郭 20.5x14.6cm, 有界, 12行19字, 黑口, 內向3葉花紋魚尾; 25.7x17.5cm	한貴古朝31-493	
76	과책	龍韜	1冊(104張): 無界, 16行字數不同; 29.0x17.5cm	古606-11	
77	과책	龍餌	49張: 行字數不同; 29.0x20.5cm	古1225-5	
78	과책	龍庭大對	107張; 28.9x21.6cm	한古朝26-82	
79	과책	利見 : 附皇 宗繩譯	1冊(130張): 15行31字; 30.0x20.5cm	古6025-52	
80	과책	狀元策	8卷5冊; 22.5x15.0cm	古古2-20-6	
81	과책	展執策	121張; 31.2x19.5cm	古朝44-가103	
82	과책	殿策	98張; 29.0x20.6cm	한古朝31-417	
83	과책	殿策	1冊(23張) : 行字數不定, 無魚尾; 17.1x23.6cm	古1258-19	
84	과책	縱橫字	84張; 29.6x19.1cm	古朝44-가104	
85	과책	增別執對	2卷2冊; 30.1x18.3cm	古朝26-18	
86	과책	震策	73張: 13行字數不同; 33.0x23.0cm	古6025-58	

87	과책	震策	2卷2冊; 32.7x22.7cm	古朝31-480	
88	과책	震策	1冊(115張): 行字數不同, 無魚尾; 25.2x18.6cm	古6025-55	
89	과책	執策	1冊; 24.7 × 16.2cm		
90	과책	策稿	141張; 27.0x17.7cm	古朝26-40	
91	과책	策東	1冊; 25.7x17.1cm	古6025-48	
92	과책	策文	1冊; 28.3x19.1cm	古6025-47	
93	과책	策文	1冊(72張): 14行38字 註雙行, 無魚尾; 33.0x22.0cm	古6025-51	
94	과책	策文選集	1冊(73張); 24.3x16.2cm	古606-3	
95	과책	策文準的	50張; 31.3x19.4cm	古朝31-115	
96	과책	策文抄	96張; 28.0x18.0cm	古606-16	
97	과책	策範	43張; 27.6x20.5cm	古朝31-451	중국 도서
98	과책	策髓	1冊(51張): 無界, 行字數不定; 24.6x17.0cm	古606-18	
99	과책	治世之務	不分卷1冊(116張): 12行字數不同 註雙行; 29.0x19.5cm	古6105-9	
100	과표	[表文]	1冊: 無界, 無魚尾; 24.8x16.0cm	古606-30	
101	과표	家藏	2冊; 27.6x17.9cm	古朝26-59	
102	과표	桂林	2冊; 26.5x14.0cm	승계古3649-76	
103	과표	桂林	98張; 23.5x21.5cm	의산古3715-116	
104	과표	攻玉	1冊: 無界; 17×10.2cm	원당古3716-89	
105	과표	科儷	105張; 26.3x17.5cm	古朝26-5	
106	과표	科麗. 冊1-2	2冊; 28.1x16.9cm	古朝44-가11	
107	과표	科程	4冊; 28.2x17.0cm	古朝26-14	
108	과표	科題	1冊; 102張; 21.8x13.7cm	古朝26-57	
109	과표	科表	70張; 23.1x14.2cm	古朝26-10	
110	과표	東國科表修攘	125張; 29.4x18.5cm	古朝26-74	
111	과표	東表	1冊(110張): 行字數不同; 26.3x18.0cm	古3643-338	
112	과표	東表	90張; 19.6x12.8cm	古朝26-7	
113	과표	東表	1冊; 25.5x18.0cm	의산古3649-92	
114	과표	東表	25張; 27.2x16.7cm	古朝45-가441	
115	과표	東表	90張; 19.6x12.8cm	古朝26-7	

116	과표	儷稿	3冊; 26.5x16.0cm	古朝44-나11	
117	과표	儷選	1冊: 無界, 無魚尾; 29.2x16.3cm	古606-23	
118	과표	儷英	1冊(56張); 26.7x15.5cm	승계古3649-80	
119	과표	私製	2冊; 29.1x18.8cm	古朝26-76	
120	과표	私集	1冊(60張): 無界; 26.0 × 18.8 cm	古3716-87	
121	과표	西裏	3卷3冊; 27.4x18.0cm	古朝26-16	
122	과표	麗華	132張: 行字數不同; 23.2x15.6cm	古3716-61	
123	과표	龍江所得	27張; 26.5x22.4cm	古朝44-가118	
124	과표	龍儷	6冊; 20.0x11.3cm	古朝26-62	
125	과표	龍梯	90張; 21.5x13.5cm	古朝26-83	
126	과표	龍梯	35張; 28.1x19.3cm	古朝26-43	순암가 구장
127	과표	雲路	1冊(150張): 20行24字; 12.0x15.5cm	古606-13	
128	과표	一戰	5冊; 19.5x11.1cm	古朝26-61	
129	과표	在筭	93張; 24.5x15.7cm	古朝26-6	순암가 구장
130	과표	從他笑	1冊(51張): 無界, 行字數不同, 無魚尾; 26.9x19.7cm	古2520-61	
131	과표	表東	1冊(32張): 無界. 20行字數不同; 28.0x20.5cm	古606-8	
132	과표	表草	不分卷1冊(100張): 字數不同; 27.2x15.5cm	古3716-57	
133	사서의	[四書]辨疑	3卷3冊; 24.0x14.2cm	古朝09-7	
134	사서의	經義問答	1冊(105張): 12行字數不同; 27.0x17.5cm	古1258-6	
135	사서의	東疑	70張: 12行字數不同; 25.7x15.8cm	古1230-39	
136	사서의	私草	28張; 23.2x21.0cm	古朝26-31	
137	사서의	生員	不分卷1冊(59張): 12行字數不同; 21.2x17.1cm	古1237-31	
138	사서의	安鼎福日記 38.策問	58冊; 15.2x16.3cm	한貴古朝93-44- 38	순암가 구장
139	사서의	疑私	47張; 25.9x18.0cm	古朝09-3	순암가 구장
140	사서의	疑用錄	109張; 24.6x16.2cm	古朝26-56	
141	사서의	疑草	1冊(107張): 17-21行字數不同; 23.3x22.0	古1237-27	
142	오경의	東義	37張; 22.4x21.5cm	古3652-21	

143	오경의	魁義	82張: 8行字數不同; 25.6x23.6cm	古1225-6	
144	오경의	錦花	1冊(88張): 無界, 行字數不定; 30.8x20.5cm	古1230-43	
145	오경의	短兵	1冊(82張): 無界, 10行字數不定, 無魚尾; 20.7x10.9cm	원당古1237-40	
146	오경의	書義	4冊: 行字數不同; 22.9x14.5cm	古1232-56	
147	오경의	詩義	2卷2冊; 20.9x16.1cm	古朝04-5	
148	오경의	禮義	3卷3冊; 20.9x16.2cm	古朝06-8	
149	오경의	義鑑	冊; 24.1x17.0cm	古朝17-19	
150	오경의	正路	1冊(65張):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22.8x20.8cm	원당古1237-41	
151	오경의	正路	1冊(65張):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22.8x20.8cm	원당古1237-41	
152	오경의	珠寡	1冊(20張): 四周單邊 半郭 19.4x11.0cm, 12行字數不同 注雙行, 無魚尾; 21.0x13.5cm	무구재古1230-25	
153	오경의	震義	1冊(55張): 16行22-26字; 25.0x22.0cm	古606-12	
154	유초집	功令要抄	1冊: 無界; 17.8x13.7cm		
155	유초집	科程	3卷1冊; 39.2x20.6cm	古朝26-67	
156	유초집	鉤玄	57張; 25.4x15.8cm	古朝91-4	
157	유초집	錦椎	不分卷1冊(39張): 無界, 18行28字; 32.2x20.8cm	古3643-493	
158	유초집	斗萍	92張: 行字數不同; 28.5 × 17.2cm	古3643-685	
159	유초집	儷規	1冊(43張); 29.0x19.5cm	古3649-115	
160	유초집	儷體彙略	132張; 28.1x17.4cm	古朝45-7476	
161	유초집	儷彙	6冊; 26.9x15.7cm	古朝45-5	
162	유초집	禮義 上	1冊; 29.5x17.7cm	동곡古5213-33	
163	유초집	駢儷華藻	1冊(77張): 無界, 8行字數不同; 27.0x21.0cm	古3603-3	
164	유초집	駢語	70張; 28.4x19.3cm	古朝91-73	
165	유초집	時中	(127張) 行字數不定 28.3x18.3cm	古3716-68	
166	유초집	試策便覽	2卷1冊; 24.9x16.0cm	古朝26-48	
167	유초집	麗門 : 坤	1冊(75張); 24.0x15.5cm	승계古3609-2	
168	유초집	龍麟	不分卷5冊; 27.4x18.5cm	古朝93-61	
169	유초집	龍餌	1冊(44張): 無界, 20行字數不同; 33.8x21.8cm	古1230-22	

170	유초집	龍珠	不分卷6冊; 27.7x19.7cm	古朝91-17	
171	유초집	策類	121張; 28.5x18.7cm	古朝31-52	
172	유초집	表格			
173	유초집	表規	1冊; 24.0x22.0cm	의산古2515-11	
174	유초집	花信風 1-3	3冊(零本); 25.0x16.0cm	古3716-43-1 - 3	
175	유초집	欽念長短句	124張; 25.5x17.4cm	古朝45-가370	
176	종합	桂枝	1冊: 無界, 無魚尾; 18.4x13.8cm	古606-27	
177	종합	科儷	1冊: 無界, 6行字數不定 註雙行, 無魚尾; 24.3x15.4cm		
178	종합	科儷	1冊; 105張; 26.3x17.5cm	古朝26-5	
179	종합	科儷	1冊: 無界, 6行字數不定 註雙行, 無魚尾; 24.3x15.4cm		
180	종합	科儷 : 自癸卯至甲辰	1冊(55張): 無界. 7行34字, 註雙行. 無魚尾; 25.5x15.0cm	古6024-132	
181	종합	科儷(肅宗, 英祖, 正祖)	9卷9冊; 28.0x18.6cm	古朝26-15	
182	종합	科文瞻錄	5卷5冊; 23.3x15.6cm	古朝26-21	
183	종합	科體	76張; 23.8x15.9cm	古朝26-70	
184	종합	光被補遺	2卷2冊; 19.6x12.7cm	古朝43-가10	순암가 구장
185	종합	奎華名選	16卷3冊: 四周單邊 半郭 21.5x14.0cm, 10行20字 註雙行, 上2葉花紋魚尾; 28.0x18.2cm	의산古3649-90	
186	종합	奎華名選抄	1冊; 24.2x20.5cm	의산古3643-142	
187	종합	錦帶殿策	27張: 14行32字; 23.3x17.0cm	성호古1258-15	성호가 구장
188	종합	東儷	151張; 26.9x17.6cm	古朝26-17	
189	종합	東儷	1冊; 23.3x15.0cm	古朝45-가444	
190	종합	東論表	1冊; 21.0x12.1cm		
191	종합	東人詩賦	4冊: 行字數不定; 26.5x16.8cm	古貴3643-17	
192	종합	東表策	73張: 四周單邊 半郭 21.2x14.3cm, 11行24字, 上黑魚尾; 27.7x17.2cm	古朝31-68	순암가 구장
193	종합	儷程	1冊: 無界, 無魚尾; 24.8x16.7cm	古606-24	
194	종합	驪州李氏科第錄	81張: 四周單邊 半郭 24.8x17.5cm, 11行23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33.9x21.5cm	우촌古3649-34	
195	종합	臨軒功令	24卷24冊; 24.9x16.4cm	古朝26-22	

196	종합	覆試科作	14張; 37.9x24.8cm	古朝26-55	
197	종합	賓興錄	5卷3冊: 四周單邊 半郭 21.1x14.1cm, 10行20字, 上2葉花紋魚尾; 29.5x18.5cm	古朝26-1	
198	종합	私草 : 詩賦 合附	1冊(70張): 12行18字, 無魚尾; 23.8x19.5cm	古3716-45	
199	종합	詩賦鈔 : 都 會白日場	37張; 0.9x22.7cm	古朝45-가371	
200	종합	龍梯	32張; 25.0x12.0cm	의산古3643-166	
201	종합	林川府君科 詩藁	52張; 29.7x19.7cm	古朝45-가397	
202	종합	剩工	76張; 23.1x14.2cm	古朝26-9	순암가 구장
203	종합	作成錄	9卷3冊: 四周單邊 半郭 21.2x14.2cm, 10行20字 註雙行, 上2葉花紋魚尾; 30.0x18.4cm	古朝26-60	
204	종합	左道辛酉式 監試初試優 等試券成冊	5張; 35.5x24.0cm	古朝26-30	
205	종합	震論	36張; 23.2x24.0	古1221-16	
206	종합	咸興府都會	6張; 39.5x27.8cm	古朝26-26	
207	종합	科儷	1冊(61張):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27.4x16.9cm	古6024-218	
208	종합	科儷	1冊; 24.0 × 11.1cm	古6024-227	
209	종합	科套	1冊 無界, 無魚尾; 24.3x16.3cm	古606-25	
	확인요	經義問目謹 對	不分卷1冊(20張): 10行25字; 30.0x18.0cm	古1258-16	
	확인요	鏡集	1冊; 17.3x10.5cm		
	확인요	古今策	1冊(74張) : 四周雙邊 半郭 22.7x13.4 cm, 有界, 12行24字 註雙行, 無魚尾; 26.0x16.7cm	원당古6025-65	
	확인요	金振	99張 : 無界, 20行28字, 無魚尾; 16.2x15.1cm	古3649-359	
	확인요	驥步/樵花	2冊; 13.8x9.4cm		
	확인요	短詞	1冊; 19.3x12.5cm		
	확인요	大言	77張; 24.0x22.2 cm	古3647-464	
	확인요	大中紅	1冊(61張) : 無界, 16行字數不定, 無魚尾; 20.2x19.7 cm	원당古1238-128	
	확인요	東賦	81張; 無界, 12行18字, 無魚尾; 28.6x18.9cm	古3643-868	

	확인요	東聲	46張; 18.5x11.0cm	의산古3643-148
	확인요	東詩	冊; 18.7x12.0cm	의산古3643-146
	확인요	東詩	1冊(70張) : 無界, 7行23字 註雙行, 無魚尾; 23.8x15.3cm	古3643-881
	확인요	東詩	1冊(81張) : 無界, 行字數不明 註雙行, 無魚尾; 25.1x17.8cm	古3643-882
	확인요	東詩	90張 : 無界, 13行21字, 無魚尾; 22.7x14.5cm	古3643-866
	확인요	東義	37張; 22.4x21.5cm	古3652-21
	확인요	東人 : 詩	不分卷1冊(63張); 22.6x20.7cm	일모古3643-518
	확인요	儷文	1冊: 無界, 無魚尾; 23.5x15.7cm	古606-28
	확인요	儷文規式	1冊; 17.0x8.0cm	
	확인요	리藻	1冊(70張); 20.6x13.0cm	古3715-233
	확인요	[問云云變通]	1冊(25張); 18.1x18.8cm	慶州李氏 鶴南亭(이혁희) -73
	확인요	[文章草章]	1冊: 無界; 23.0 × 20.8cm	古3715-249
	확인요	[文集]	1冊(32張) : 無界, 12行20字, 無魚尾; 29.1x16.7cm	古3643-825
	확인요	東國文抄 1-3	不分卷3冊: 無界, 14行字數不同; 23.7x22.2cm	古3649-169-1
	확인요	輔聰	1冊(76張): 9行字數大小不同 註雙行, 無魚尾; 28.0x18.6cm	古7300-6
	확인요	四六會	不分卷1冊; 25.0x23.5cm	무구재古032-11 0
	확인요	私章, 大椎, 百足	75張 : 無界, 16行36字, 無魚尾; 17.6x10.8cm	
	확인요	私草	1冊(32張); 19.2x11.6cm	慶州李氏 鶴南亭(이혁희) -75
	확인요	私抄	31張 :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22.1x20.5cm	古3649-387
	확인요	書義	1冊(57張); 31.7x19.7cm	慶州李氏 鶴南亭(이혁희)-3
	확인요	善鳴	243張 : 無界, 10行18字, 無魚尾; 18.7x12.6cm	古3649-362
	확인요	詩賦	44張 : 無界, 11行28字, 無魚尾; 24.4x16.2cm	古3715-406
	확인요	詩義	1冊(91張) :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33.3x21.0cm	동봉古1233-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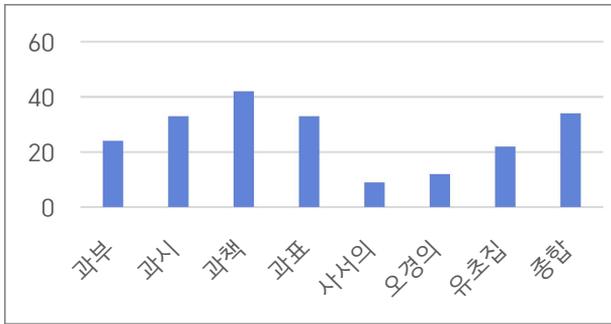
확인요	拭腕	34張 : 無界, 4行字數不定, 無魚尾; 33.4x21.6cm	무구재古445-30
확인요	易斷		古1493-129
확인요	蓮波		
확인요	(古詩)玉藻	1冊(61張) : 無界, 行字數不明 註雙行, 無魚尾; 18.2x17.4cm	古3643-884
확인요	龍圖	1冊(43張) : 無界, 18行14字, 無魚尾; 16.6x19.3cm	古3644-540
확인요	龍門對策	1冊(46張) : 無界, 17行44字, 無魚尾; 33.221.2x21.2cm	
확인요	龍門大對	1冊(30張) : 無界, 11行42字, 無魚尾; 31.2x16.0cm	古3652-36
확인요	雲梯	1冊(37張) :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22.9x14.7cm	원당古3647-532
확인요	雲釣賦抄	54張 : 無界, 16行14字, 無魚尾; 12.7x14.8cm	무구재古3649-3 42
확인요	疑私〔疑草〕	21張 : 無界, 14行24字內外, 無魚尾; 18.2x15.7cm	古3649-363
확인요	耳囊	1冊; 24.5x16.8cm	古古10-30-가18
확인요	嚼華	1冊(33張) : 無界, 14行35字內外, 無魚尾; 25.0x15.1cm	우정古3649-353
확인요	折桂	28張 : 無界, 10行30字, 無魚尾; 18.0x11.0cm	古3649-358
확인요	正聲	1冊(38張); 21.3x13.4cm	古3715-228
확인요	珠玉	1冊; 14.7x10.4cm	
확인요	指路	1冊(138張):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29.5x19.6cm	古6024-219
확인요	震侶	75張; 26.5x17.5	승계古3647-126
확인요	眞珠般	1冊; 21.0x17.0cm	의산古3643-158
확인요	集玉 乾	1冊(52張); 20.3x13.0cm	古3715-234
확인요	採驪	1冊; 16.8x14.0cm	
확인요	策訣 貞	1冊(79張): 行字數不同 註雙行; 19.8x17.6cm	古1496-28
확인요	採驪	1冊; 16.8x14.0cm	
확인요	策問答	1冊(25張): 4行29-33字; 24.7x13.7 cm	古606-14
확인요	策問粹語	不分卷1冊(102張): 12行字數不同; 24.7x16.9 cm	古6024-164

확인요	策髓	1冊(51張): 無界, 行字數不定; 24.6x17.0cm	古606-18	
확인요	疊雙	1冊; 24.5x11.5cm		
확인요	[聽玉笛]	1冊(16張); 29.0x20.0cm	古3641-36	
확인요	[表文]	1冊: 無界, 無魚尾; 24.8x16.0cm	古606-30	
확인요	表宗	89張: 無界, 行字數不明 註雙行, 無魚尾; 22.8x15.5cm	古3643-885	
확인요	表集	1冊(71張):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25.0x14.5cm	古3645-7	
확인요	必得	24冊; 14.2-9.3x12.0-8.4cm	古朝26-72	
확인요	必中抄	1冊; 21.4x13.3cm	동곡古3715-157	
확인요	[韓汝海]	1冊(37張); 23.5x16.5cm	慶州李氏鶴南 亭(이혁희)-53	
확인요	策問答	1冊(25張): 4行29-33字; 24.7x13.7 cm	古606-14	
확인요	必得	24冊; 14.2-9.3x12.0-8.4 cm	古朝26-72	

자료는 크게 科賦/科詩/科策/科表(箋 포함)/四書疑/五經義/類抄集/綜合의 8종으로 분류하였다. 개별 문체로는 科文六體인 시, 부, 표, 책, 사서의, 오경의 작품을 개별 수록한 문헌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예시 구문을 주제별로 모아 놓은 類抄集⁶⁾, 특정 문체의 작품만을 모은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문체에서 두루 뽑아 이루어진 자료는 종합선집으로 구분하였다.

위의 209건의 자료를 수량 및 비율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 6) ‘유초’라는 용어는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에서 제안된 것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도 조선 시대 여러 문헌에서 ‘유초’라는 표현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였다. 일례로 인조 연간의 문신인 朴知誠(1573-1635)는 당대의 거자들이 科表를 지을 때 고전의 구절을 베껴 유초류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문체를 지적한 바 있다. 『承政院日記』 인조 11년(1633 계유) 6월 13일, “蓋以表者, 非自胸中流出, 而作爲文章者也, 剽竊經書文字章句, 以爲類抄, 而綴爲對偶聲律之文, 其爲情態, 實與刻手畫員無以異也. 雖無文氣者, 亦可以作.”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별 수량

위 그림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과부, 과시, 과책, 과표 이 네 문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이 네 문체가 조선 시대 과시의 핵심 문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과책은 문과 式年試 終場의 필수 과목이었고 殿試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던 문체였다. 한편 과부는 소과에서, 과표는 대과 식년시 中場 등에서 거의 필수적인 문체였고, 조선 후기에는 전시에서도 빈번하게 출제되었다. 현재 전해지는 과시 문제 자료들을 살펴 보면, 16세기까지는 표전과 論 등이 서너 차례 출제된 사례를 제외하면 식년시에서는 거의 대부분 과책이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과책은 虛頭로부터 篇終에 이르기까지,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형식적 요구가 있었고, 문제의 내용이 복잡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문체였다. 과부와 과표 또한 형식적 요구가 까다롭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각종 역사적 典故에 능통할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많은 거자들이 까다로워 하던 과목의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책 및 과부와 과표에 대해서는 작품 선집, 유초집 등 관련 수험서들이 비교적 다량으로 제작되어 활용되었던 것이다.

7) 과표의 定式에 대해서는 이상욱(2020) 참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科詩인데, 과시는 소과의 進士試에서만 시험을 보이고 대과에서는 아예 시험 과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서의와 오경의에 비해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관련 자료들이 존재한다. 이는 과체시가 단순히 과거 시험 과목의 하나로서만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어도 개인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문체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던 데서 그 원인을 일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⁸⁾ 한편으로는 생원보다는 진사를 선호했던 사회 분위기가 역시 영향을 주어 진사시를 위한 과시 선집이 다수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편찬 주체가 밝혀져 있지 않은 필사본 자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과시 자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조선 지식인들의 의식 속에는 과거 합격 자체는 영광으로 여기는 반면에 과거 공부하는 부끄러운 행위로 인식하는 이중적 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수험서들이 체계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하고 개인별, 혹은 문중별로 제한적으로 생산 및 향유되었던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수험서를 제작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로 인식되었고 그에 따라 현전하는 거의 대부분의 과시 관련 자료들이 편저자의 이름 없이, 때로는 제목마저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남아 있게 되었던 것이다.⁹⁾ 이는 중국에서 상업 출판이 활발하여 다양한 출판사들이 출판사와 편찬자의 이름을 걸고 과시 참고서를 제작하여 유통시켰던 것¹⁰⁾과는 다른, 조선 지식인 사회만의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8) 이와 관련해서 심경호, 「조선후기 번각시문에 관한 일고찰」, 『대동한문학』 53, 대동한문학회, 2017; 「김삿갓 한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문학논집』 51집, 근역한문학회, 2018 등을 참조. 과체시와 그 변형이 大古風으로 불리며 조선 후기에 개인의 사상 감정을 노래한 한시 양식으로 활용되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9) 과시자료들 중에서는 『私抄』 등과 같이 표제에 ‘私’를 내세운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10) 이에 대해서는 張獻忠, 「明中后期科举考试用书的出版」, 『社会科学辑刊』, 南

Ⅲ. 주요 자료 소개

이 장에서는 위 목록에서 제시된 자료들 중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들 일부를 골라 종류별로 소개해 보기로 한다.

1. 과책 선집 『龍庭大對』

전술한 바와 같이 책문은 식년시 대과 종장의 필수 과목이며 전시에 서도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었으며, 기타 別試에서도 책문의 출제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책문을 잘 짓기 위해서는 책문의 형식과 논리에 익숙해야 하고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전고에도 능통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긴 기간의 수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과책 참고서도 작품 선집, 유초집 등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져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龍庭大對』(古朝26-82)는 조선 중후기 과거 시험의 대책 답안들 중에서 특별히 우수한 답안(1-2위 이내)들만을 가려 뽑은 책¹¹⁾으로서, 조선 시대 과문 선집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유일본인 이 책에 수록된 작품 목록은 아래와 같다.

연번	제목	연대	시험종류	작자	합격순위
1	倅天	己巳(1629)	別試	鄭斗卿(1597-1673)	甲科 1(1/25)
2	同題	"	"	李回寶(1594-1669)	乙科 1(2/25)
3	復讎雪恥	庚午(1630)	別試	鄭雷卿(1608-1639)	甲科 1(1/10)
4	同題	"	"	李時楷(1600-1657)	乙科 1(2/10)
5	經傳			李穡(1600-?)	
6	歷年長久	丙寅(1626)	別試	沈演(1587-1646)	甲科 1(1/16)

开大学历史学院, 2010年 1期 참조.

- 11) 조선 전기-중기의 우수 답안을 뽑은 과책선집으로는 『東國壯元策』(일산 貴 6024-7, 14-15세기 작품 수록), 『東策精粹』(한 貴 古朝31-137, 16세기 작품 수록) 등을 대표로 언급할 만하다.

7	內修外攘	戊辰(1628)	別試	李昇(1605-1664)	甲科 1(1/14)
8	順民心	戊辰(1628)	別試	趙錫胤(1606-1655)	甲科 1(1/11)
9	君臣相遇	甲戌(1634)	別試	吳達濟(1609-1637)	甲科 1(1/12)
10	待夷狄	癸酉(1633)	式年試	陸行善(1609-1661)	甲科 1(1/33)
11	同題	"	"	徐忬(1605-1656)	甲科 2(2/33)
12	同題	"	"	尹世任(1596-?)	甲科 3(3/33)
13	將相	己卯(1639)	別試	李以存(1609-?)	甲科 1(1/16)
14	同題	"	"	鄭始成(1608-1685)	乙科 1(2/16)
15	歷年長久	丙寅(1626)	別試	李穆(1599-1624)	乙科 1(2/16)
16	順民心	戊辰(1628)	別試	卞時益(1598-?)	乙科 3(4/11)
17	用人	庚申(1560)	別試	閔德鳳(1519-1573)	甲科 1(1/18)
18	兵食盜賊	辛酉(1561)	式年試	崔豈(1539-1612)	甲科 1(1/36)
19	君臣相遇	甲戌(1634)	別試	沈世鐸(1601-?)	乙科 2(3/12)
20	朋黨	乙丑(1625)	別試	朴日省(1599-1671)	丙科 10(12/12)
21	財用任人	庚辰(1580)	別試	李嶸(1560-1582)	乙科 2(3/27)
22	戰守和	丁卯(1627)	式年試	沈演(1587-1646)	甲科 2(2/34)
23	將相	己卯(1639)	別試	申弘望(1600-1673)	丙科 1(5/16)
24	同題	"	"	金三樂(1610-1666)	丙科 9(13/16)
25	復讎	丁酉(1597)	別試	李必榮(1573-?)	乙科 4(5/19)
26	時務	丙子(1636)	別試	申濡(1610-1665)	甲科 1(1/11)
27	戰守	丁酉(1597)	別試	趙守寅(1568-?)	甲科 1(1/19)
28	畏民	庚子(1600)	別試	李時楨(1568-?)	甲科 1(1/16)
29	紀綱	癸亥(1623)	庭試	申達道(1576-1631)	甲科 1(1/4)
30	上好下甚			柳道三(1609-?)	
31	王霸	癸亥(1623)	改	蔡裕後(1599-1660)	甲科 1(1/24)
32	修身安民制敵	戊辰(1628)	別試	朴漪(1600-1644)	乙科 1(2/14)
33	文章	己丑(1589)	增廣試	柳夢寅(1559-1623)	甲科 1(1/34)
34	官爵	乙酉(1645)	別試	權悟(1602-?)	甲科 1(1/15)
35	同題	"	"	金克和(1606-?)	丙科 8(13/15)
36	同題	"	"	李台瑞(1614-1680)	丙科 7(12/15)
38	同題	"	"	鄭必達(1611-1693)	乙科 1(2/15)
39	同題	"	"	李有源(1603-1672)	丙科 5(10/15)
40	變通	甲申(1644)	別試	崔後賢(1611-?)	甲科 1(1/19)
41	同題	"	"	李壘(1611-1668)	乙科 2(3/19)
42	同題	"	"	崔孝霽(1608-1671)	乙科 3(4/19)
43	同題	"	"	洪命夏(1607-1667)	乙科 1(2/19)
44	同題	"	"	申混(1624-1656)	丙科 11(15/19)
45	一字	癸巳(1653)	別試	權大載(1620-1689)	乙科 2(3/15)
46	同題	"	"	金震標(1614-1671)	甲科 1(1/15)

2. 과시 선집 『科詩分韻』

과시 선집 중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현전 과시 선집 중 가장 방대한 분량(12책)으로 생각되는 『科詩分韻』(한古朝45-가258)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짐작되듯 과시를韻目을 기준으로 분류해 수록한 책이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유일본이다. (그림 3)

이 책에는 한 면에 한 편씩의 과시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작품마다 제목(문제)을 적고 그 아래에 小字二行으로 시험 연도와 종류, 답안 작성자와 성적을 부기해 놓았다. 시험 종류를 살펴 보면 정규 과시 외에도, 예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陞補試 등 비정규 과시의 문제와 답안까지 보존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난외에는 試官 정보, 때로는 합격자 명단까지 기록해 놓았다.¹³⁾ 과문선집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시험 및 작자 정보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는데, 해당 자료가 실제 시험에 제출된 답안인지 습작인지를 분별하는데 그것이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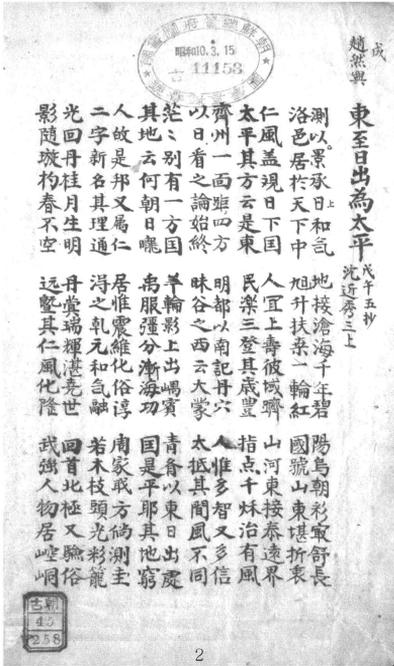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 후기를 총망라하고 있어서 조선 후기 과시의 흐름을 보여주기에 손색이 없다. 총 수록 작품 숫자도 2,400여 수에 달하며, 전체 내용을 楷書로 정서해 놓아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과시 선집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서의 선집 『東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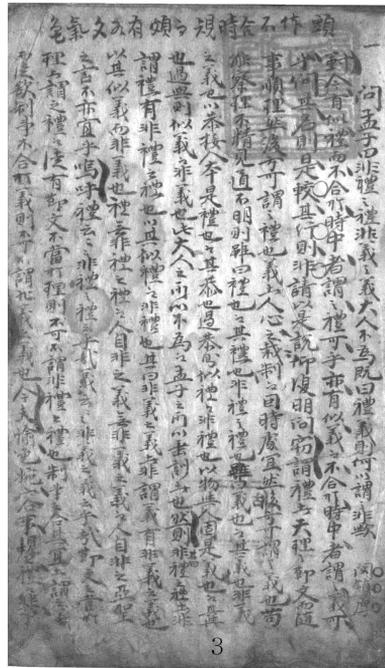
사서의는 四書의 내용이나 개념어, 문장 간의 논리 등에 대한 일정한 형태의 질문에 답하는 논술 과목이다. 요구되는 분량이 그리 길지 않고 대상 자료 또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비교적 좁고 전형화

13) 물론 시험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작품도 상당수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시험 정보를 많이 수록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된 답안이 많이 제출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다.¹⁴⁾



<그림 3> 『과시분운』



<그림 4> 『동』

사서의 선집은 문제 전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수록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東疑』(古1230-39-75, 그림 4) 역시 그러한 형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 책의 경우에는 시험 관련 정보(시험 종류, 시행 연도 등)는 수록되지 않은 대신에 답안 작성자의 이름이 문제 아래에 질문의 전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수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 책은 다른 과문선집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난외에 해당 답안에 대한 짧은 평문이 부기되어 있는 점이다. 과문 자료에

14) 사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윤선영, 「조선 시대 과시의 사서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참조. 윤선영은 이후로도 사서를 주제로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 논평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¹⁵⁾에서 이는 과문을 글쓰기 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¹⁶⁾ 조선의 榜目類에 해당하는 중국의 登科錄 자료에는 합격자의 八股文 답안과 함께 그에 대한 시관의 논평을 함께 실어두고 있으나¹⁷⁾ 조선의 방목에는 합격자의 답안이 실리지 않으며 통상 과문 선집에 작품에 대한 논평이 부기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뚜렷하다고 하겠다.

<그림 4>의 내용을 사례로 들어 보면, ‘問’으로 시작되는 문제 부분을 통해 해당 문제가 『맹자』 「離婁下」의 ‘非禮之禮’ 장의 내용 중 ‘비례 지례’와 ‘非義之義’를 문제삼으면서 ‘예’와 ‘의’에 왜 ‘非’자를 붙였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안을 작성한 사람은 閔鎭厚(1659~1720)로, 그는 1681년(숙종 7) 식년 생원시에서 장원급제하였다. 다만 당시 시험문제는 會試의 문제만이 확인되어 해당 문제는 그가 初試에서 작성한 답안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단의 난외를 보면 민진후의 답안에 대한 단평이 수록되어 있는바, “頭作不合時規, 而頗有名文氣色”이라 하여 해당 답안이 時規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자못 나름대로 名文의 氣色이 있는 점을 호평하였다.

4. 과부 선집 『衆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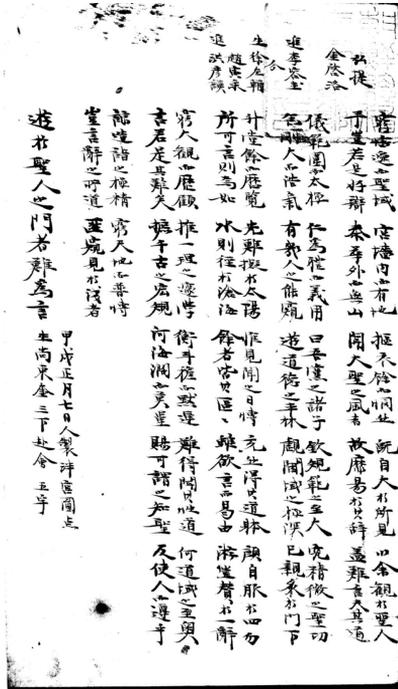
과부 선집으로 소개할 것은 『衆芳』(한古朝45-16, 그림 5)이다. 시험 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여타의 과부 선집과 달리, 이 『중방』은 다른 어떤 과시 자료보다도 더 시험 정보가 상세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15) 과문에 대한 비평은 각종 문집에서 산발적으로 보이는 단평 외에, 『승정원일기』, 『내각일력』 등의 科次 기사에 등장하는 논의가 거의 전부이다.

16) 대개 과문에 대한 평가는 『승정원일기』나 『내각일력』 등에서 시권을 考課할 때 임금이나 시관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을 뿐이고, 과문선집 자료에 이처럼 비평 자료가 실려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17) 이는 지정 토론에서 윤선영 선생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다.

<그림 5>의 「遊於聖人之門者難爲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작품은 『孟子』 「盡心上」의 구절을 문제로 출제한 데 대한 답안으로, 제목 밑의 小字를 보면 갑술년 1월 7일의 人日製에서 출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답안 작성자는 生員 尙東奎(1763-?)로 그는 해당 시험에서 三下의 성적으로 直赴會試의 혜택을 받았다. 상동규가 응시했던 인일제는 1814년(순조 14)에 치러진 인일제로, 『承政院日記』와 『日省錄』에 공히 같은 날짜에 관련 기록이 있어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 이처럼 시험 일자까지 분명하게 제시해 놓은 과시 자료는 그 유례를 찾아보



<그림 5> 『중방』

기가 힘들다. 심지어 이 기록에서는 상동규의 성적 및 직부회시의 혜택을 받았음(赴會)을 명기한 뒤, 그 아래에 '五字'라는 두 글자를 추가해 놓았다. 이는 과거에서 제출된 답안을 모아 作軸하면서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각 답안별로 매겨 놓는 일련 번호인바, 상동규의 답안은 字軸의 5번째로서 45번째로 제출된 답안임을 알 수 있다. 이 정보까지 기입해 놓은 과시 자료는 필자의 寡聞 탓이었으나 이 책이 유일하다고 생각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책은 상단의 난외에 시험관 성명과 합격자 명단 역시 정리해두었다. 1814년의 인일제 자료를 다시 보면, 당시 시험관은 弘提, 즉 弘文館 提學이던 金啓洛이고 수석을 차지한 상동규 다음으로는 給分을 받은 진사 李容圭, 그 다음으로는 생원 徐左輔, 趙寅采, 진사 洪彦謨 등 총 5명이 해당 시험에서 합격하였다. 이 중 조인채와 홍언모는

『승정원일기』나 『일성록』 등에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역시 『중방』을 통해서만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중방』은 조선 후기의 과부 선집으로서 작품을 충실히 보존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어떤 과시 자료와 비교해 보아도 훨씬 상세하게 시험 관련 정보를 기록해 놓아서 기존 관련 기록의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 유초집 『科程』

유초란 분류별로 초록했다는 뜻으로, 주로 과표 창작에 활용할 수 있는 長短句 對仗을 주제별로 분류해 수록한 책들이 많다. 그중 『科程』(古朝26-67)은 온전한 과표 창작을 위해 만들어진 유초집으로, 유초한 내용 뿐만 아니라 과표의 형식 또한 매우 상세히 설명해 놓은 作法 참고서이기도 하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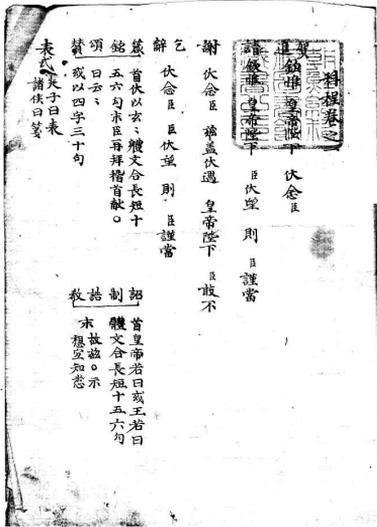
이 책은 제일 먼저 과표의 내용 분류에 따른 투식을 예문과 함께 먼저 설명한 뒤, 다양한 주제의 對句들을 분류 수록하였다. 해당 주제 분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卦對 / 國對 / 數對 / 三字對 / 疊字對 / 色對 / 六甲對 / 禽獸對 / 草木對 / 服飾對 / 身體對 / 諸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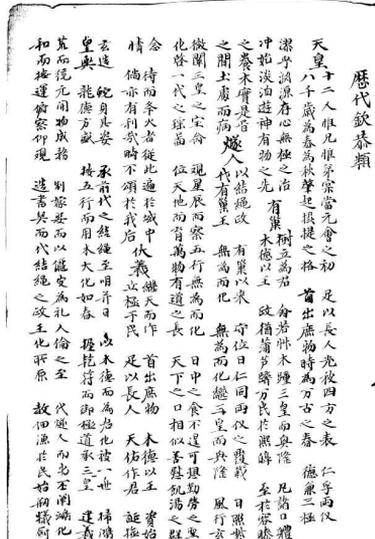
이 책에 수록된 구절들을 보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글자 수의 대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짧게는 2자구로부터 3, 4자, 많게는 6자나 7자에 이르

18) 작법 참고서도 별도의 분류로 다를 법하지만 오로지 작법만을 다룬 책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대개의 경우는 작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시 문구 혹은 예시 답안을 함께 수록하기 마련이다. 예외적으로 작법만을 설명한 참고서로는 규장각 소장의 『科文規式』(奎9945)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책은 시, 부, 표, 책, 논, 잠, 명, 송 등 과시의 주요 문체들의 작법을 형식적 측면에 유의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과표에 대해서는 과표의 내용에 따른 여섯 가지 분류인 講, 謝, 進, 賀, 辭, 乞로 나누어 각 종류별 투식을 꼼꼼히 정리해 놓았다.

는 비교적 긴 대구들도 다양하게 구비하여 놓았다.19)



<그림 6> 『과정』



<그림 7> 『과정』 중 「역대흠공류」 부분

대구 다음에는 투식어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를 장단구를 혼합해 가며 수록하였다. 이를테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歷代欽恭類」인데, 虛頭 부분의 長短句 다음에 오는 투식어인 欽恭(혹은 欽惟)에 이어서 쓸 수 있는 장구 혹은 단구들을 역대의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나열해 놓았다. 인물은 시대순으로 분류하여 찾기가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인물을 먼저 시대순으로 나열한 뒤, 우리나라 인물들을 나열하였다.20) <그림 7>을 보면, 제일 먼저 天皇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장구 3쪽과 단구 1쪽이 제시되고, 이어서 有巢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단구 1쪽과 장구 2쪽이 제시되며, 세 번째로는 燧人氏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장구와 단구가 제시되어

19) 이중 6자구는 科賦 작성도 옆두에 두고 제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 우리나라 인물에 대한 대구도 제시된 것은 本朝, 즉 조선의 고사를 주제로 箋이 출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 외에도 유초류는 다양한 분류 기준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功令要抄』²¹⁾(그림 8)은 天道門에서 帝王都邑門에 이르기까지 총 30문으로 분류하고, 각 문마다 하위 주제를 설정하여 다양한 字數로 이루어진 대구를 배열해 놓았다. 이를테면 천도문의 경우, 天, 天河, 日, 日蝕, 月, 新月, 月蝕, 星, 風, 雨, 雲, 雷, 霧, 烟, 霞, 露, 甘露, 虹, 霜, 水, 霰, 雪, 雹 등 23개의 하위 항목을 설정해 자료를 배열하였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유초류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의 『儷彙』(한古朝 45-5, 그림 9) 역시 『공령요초』와 유사하게 乾道, 坤道 등 18개의 대항목을 설정하고 하위 항목을 다시 나누어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다. 『여취』의 경우는, 후대의 加筆로 보이기는 하나 페이지마다 난외에 대항목을 기입해 놓아서 내용을 검색하기에 편하도록 해놓은 점이 특징적이다.

6. 종합 선집 『驪州李氏科第錄』

마지막으로 종합 선집으로는 일반적인 과시 자료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驪州李氏科第錄』(우촌 古3649-34)이라는 題名の 이 자료는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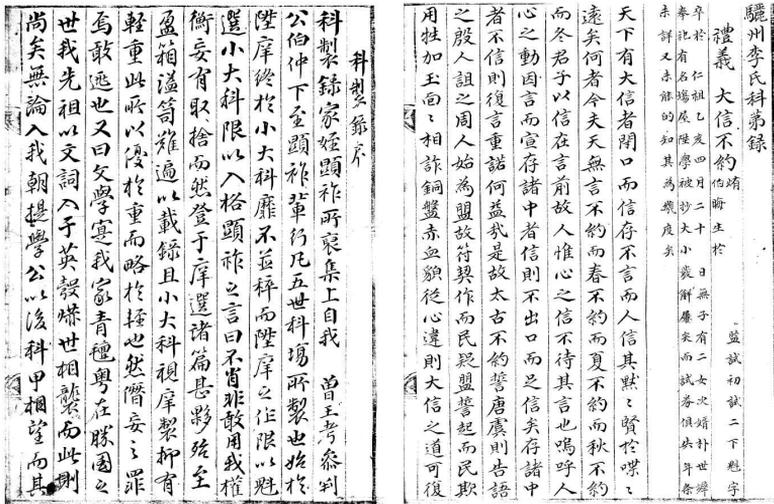
<그림 8> 『공령요초』



<그림 9> 『여취』

21) 표제는 '공령요초'로 되어 있으나 卷首題는 '科要'로 되어 있다.

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여주 이씨 가문 인물들의 科作을 모아 놓은 과문 선집으로, 다양한 문체의 과문 자료를 수록한 종합 선집이다. 이 책을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편찬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시 관련 자료 대부분의 편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고 서발문 또한 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서문을 갖추어 편자를 확정할 수 있는 희귀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림 10> 『여주이씨과제록』 서문

<그림 11> 『여주이씨과제록』 본문

이 책은 여주 이씨 가문의 李顯祚가 자기 가문 출신 인물들의 과거에서 지은 답안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그의 仲父 李壽沆(1685-?)이 1745년(영조 21 을축) 여름에 서문을 썼고, 편자도 自序를 지어 이수항의 서문 뒤에 붙였다. 서문의 내용에 따르면 이현조는 조상들이 과거에 합격한 자랑스러운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잊혀지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집안에 자신의 고조부의 시권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고조부로부터 아래로 6대에 이르기까지 대소과에서 급제한 시권들을 수집하여 시 23편, 배율 2편, 표 20편, 부 16편, 義

와 策 12편, 疑問 2편을 모으고, 제목이 없는 작품과 제목만 있는 작품도 모아서 책을 엮었다고 밝혀놓았다.²²⁾

이 『과제록』은 가문 사람들의 과거 합격 사실을 기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험 및 해당 답안 작성자에 대해 다른 과문선집에 비해 훨씬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특징이며, 때로는 자신이 해당 자료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과시 자료의 편찬 경위나 편저자 등을 거의 알 수 없었던 조선 시대 과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여주이씨과제록』은 매우 독특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로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IV. 과시 자료 연구의 몇 가지 과제

여기에서는 과시 자료 연구의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과시 자료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과시 자료의 지속적인 조사와 발굴

과시 자료 연구에서 가장 미비한 부분은 바로 자료의 현황 파악마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과시 자료가 워낙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 고문헌을 소장한 기관 중에 과시 자료를 소장하지 않은 기관을 찾

22) 이현조, 「科第錄自序」, 『여주이씨과제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우춘古 3649-34), “世之人, 於其祖先事, 歲月既積, 耳目漸遠, 則其科甲年條, 或不能詳記. 余嘗病之, 偶閱家中舊藏, 得高祖考參判公試券, 遂起意, 自公伯仲, 下至運喆行, 凡六世, 聚其前後科製大小科, 則限入格, 庠製則取魁. 遂詩凡二十三篇, 排律又二篇, 表視詩少三篇, 賦視表又少四篇, 義與策俱十二篇, 而疑問只二篇, 有題而無文者十一, 無文無題而只書某年某科者七. 不拘行之尊卑, 只排年條及科等上下而錄之, 又以某年某科某等第幾人, 及爲某之子生卒年月官職墓地, 并註錄於諱字之下, 以便考覽, 而從今以往, 宗人之登科者, 亦使之長第繼載焉. 參判公以前, 世代既遠, 其文無傳, 此所以自公始也. 編既訖, 名之曰李氏科第錄, 仲父觀察公序之.”

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시 자료의 현황은 거의 파악되어 있지 않은데, 한정된 인력으로 과시 자료의 현황을 온당히 파악해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목록 및 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과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당 자료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견된다.²³⁾ 따라서 기존에 정리 작업이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통해 과시 자료를 조사 발굴하고 이를 학계에 보고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양성 역시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2. 과시 자료의 지역별, 가문별 전승 양상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는 과시 자료가 公刊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私的으로 편찬되고 유통되었다. 특히 지역별, 혹은 가문별로 해당 지역 또는 가문에서만 전승되는 과시 참고서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을 지역 또는 가문의 특성과 연관지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목록을 살펴 보면, 順庵 安鼎福의 집안, 星湖 李瀼의 집안 등에서 대대로 소장해 오던 과시 자료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중 전래 과시 자료들은 대대로 그 문중에서만 전수되면서 합격을 위한 일종의 비법서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별, 가문별 과시 자료 전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보다 종합적인 시야에서 연구함으로써 과시 자료의 존재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23) 이를테면 과시 선집을 단순히 古詩 모음집으로 파악한다든지, 四書疑나 五經義 선집을 유가 경전에 대한 해설서로 파악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 科賦의 경우도 그 형식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제가 중국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것이다 보니 중국의 부 작품을 모아 놓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3. 중국 과시 자료와의 비교 연구

과거가 기본적으로 중국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만큼, 조선 과시 연구에서 중국과의 비교 연구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에서는 과시 자료가 상업적으로 출판되어 널리 읽혔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차이점이 있으나, 다양한 참고서를 과거 합격을 위해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앞으로 과시 자료의 존재 양상 및 그 경향성의 같고 다른 점 등에 대해서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 과거 문화사를 좀더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과시 자료가 조선에 유입되어 과거 대비용으로 사용되었던 사례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바, 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중 과거 문화 교류사에 대해서도 이해를 진전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4. 과시 자료의 DB화와 그 활용

과시 자료의 DB 구축은 현재 초창기에 있는데, 주로 과시 문제 및 답안 자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향후 좀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과시 자료들을 DB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과시 자료들 중에서 유초류는 DB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답안 자료 외에도 꼭 DB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활용하여 조선 시대 과시 답안에서 유초류를 얼마나 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거나, 특정 주제에서 주로 어떤 내용으로 답안을 구성하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작성된 답안이 얼마나 합격하였는지 등, 연구자 개인의 직관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시 관련 사실들이 DB 구축 및 그 활용을 통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과시 DB를 활용하여 과문에서의 다양한 전고들을 보다 손쉽게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연구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

24)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발원지인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과시 자료 활용법에 대한 推論을 곁하여

이 논문에서 필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목록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과시 자료를 선별하여 그 목록을 제시하고, 그중 독특한 의미를 지니는 일부 자료들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아울러 과시 자료의 연구 과제 몇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과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조선 시대의 과시 자료 활용법에 대한 推論을 제시함으로써 맺음말을 갈음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시대의 과시 참고서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과시 참고서를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활용하였을까? 가장 定石的인 방법이라면, 과시 참고서들을 읽으면서 과문체에 익숙해진 뒤에 習作을 반복함으로써 과문 창작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훈련된 擧子라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해당 주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과 전고 등에 능통하여 개성적인 답안을 창작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순수한 ‘실력’으로 답안을 창작해 내어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과시 참고서 중 유초집과 과문선집의 존재가 부각된다. 과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좀더 상론해 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시자료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표선집인데, 과표선집은 작품을 무작위로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별, 주제별로 수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표의 여섯 가지 유형에 맞추어 작품을 수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시대순으로 작품을 수록하게 된다. 일부 거자들은 이러한 과표 선집을 휴대²⁵⁾하고 科場에 임하여 試題와 같거나 유사한 예시 답안을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적절히 문구를 가감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으리라 추측된다. 혹은 同接 단위로 모여서 다양한 과표 선집에서 관련 작품을 찾아내고, 상호간 논의를 통해 한 편의 완결된 답안을 작성하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²⁶⁾

이 경우, 구문 참고서는 거자들이 참고한 예시 답안에 약간의 개성(독창적인 작품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기존의 모범 답안을 답습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지 않았을까? 주제별로 분류된 내용 중에서 자신이 작성해야 하는 주제와 관련된 항목을 검색하여 해당 항목에 실린 다양한 장단구 중에 필요한 것을 적절히 선택하여 자신의 답안에 구사함으로써 거자들은 기존의 모범 답안과는 조금 달라진 답안을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구문 참고서들의 경우는 서두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구문, 결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구문 등 과표의 형식에 맞춘 예시 구문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자들은 해당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적절히 자신의 답안에서 구사하기만 하면 된다.

필자가 이런 추론을 하게 된 이유는, 조선 후기에 과거 부정이 만연해

25) 이른바 袖珍本이라고 불리는 손바닥 만한 크기의 과시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대개는 거자들이 시험장에 휴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로 보인다.

26) 조선 후기 거자들이 그룹을 조직하여 그룹 단위로 답안을 공동 작성하는 것은 일반화된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동석, 「과거시험의 공동제술에 대한 연구」, 『고문서연구』 47, 한국고문서학회, 2015 참조. 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에 출생해 전통 한학을 공부하였고 式年試 初試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白凡 金九(1876-1949)는 당시 科場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 때에 壬辰慶科를 해주에서 보인다는 공포가 났으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마즈막 과거였다. …… 정가에 赴門을 한다는데 선비들이 접을 따라서 제 접 이름을 쓴 백포기를 장대 끝에 높이 들고 모여들었다. 山洞接, 石潭接, 이 모양이었다. 선비들은 거른 비로 만든 儒巾을 머리에 쓰고, 도포를 입고 접기를 따라 꾸역꾸역 밀려들어 좋은 자리를 먼저 잡으라고 앞장선 용사패들이 아우성을 하는 것도 불만하였다. 원래 과장에는 노소도 없고 귀천도 없이 무질서한 것이 유풍이라 한다.”(金九, 『白凡逸志』, 국토원, 1948, 21-22쪽)

있었던 역사적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어느 시대나 시험이 존재한다면 그 시험을 쉽게 통과하기 위한 부정 행위가 자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현대와 달리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었던 전근대 시대에는 그 정도가 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였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도 그리 엄격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전하는 수많은 과시 참고서들이 대개 조선 후기, 숙종 연간 이후에 만들어진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과시 참고서들이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부정 행위 도구로 사용되었으리라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와 관련된 星湖 李瀼(1681-1763)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소개한다.

우리나라에는 科詩, 科表의 式이 있게 되었다. 구절마다 套가 있고, 글자마다 격식에 맞추어야 하니, 그 방법이 매우 어려우면서도 매우 쉽다. 이것으로 인재를 뽑아 卿相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또한 부끄러워 용납될 바가 없는 것처럼 한다.²⁷⁾

◇ 논문투고일: 23.08.31 / 심사완료일: 23.09.23 / 게재확정일: 23.09.29.

27) 李瀼, 『星湖僊說·人事門』 「禁五七言」, “至於我小國, 有科詩科表之式, 句句有套, 字字依樣, 其術極難而極易. 以此取士, 作卿作相, 外此不但人之嗤點, 己亦羞吝若無所容.”

<참고문헌>

1. 자료

- 『科詩分韻』,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東國壯元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東策精粹』,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驪州李氏科第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龍庭大對』,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衆芳』,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李瀾, 『星湖僊說』,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金九, 『白凡逸志』, 국토원, 1948.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nl.go.kr/korcis>.

2. 논문

- 김 경, 「조선 후기 남인계 과제시집 『근예준선』 연구」, 『민족문화』 57집, 한국고전번역원, 2021, 161-191면.
김광년, 「정조-순조 연간의 과문집 『임헌공령』 연구」, 『동양고전연구』 80집, 동양고전학회, 2020, 129-159면.
김동석, 「과거시험의 공동제술에 대한 연구」, 『고문서연구』 47, 한국고문서학회, 2015, 117-147면.
노요한·김민구·남윤지·송채은, 「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과시 자료 소개」, 『한문학논집』 62집, 근역한문학회, 2022, 7-65면.
박선이, 「조선 후기 科文選集 『儷林』 에 대하여 : 자료 개관 및 가치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JKC 50집, 한국언어문학학술확산연구소, 2020, 253-279면.
박선이, 「조선 후기 科試 참고서 『表東人』 에 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 62집, 근역한문학회, 2022, 93-112면.
박현순, 「조선 시대 과거 수험서」, 『한국문화』 69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205-243면.

- 박현순, 「조선후기 과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 규장각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83집, 한국한문학회, 2021, 77-116면.
- 송채은, 「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科表抄 『東林』에 대하여」, 『고전과 해석』 37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22, 259-275면.
- 심경호, 「조선후기 변격시문에 관한 일고찰」, 『대동한문학』 53, 대동한문학회, 2017, 5-36면.
- 심경호, 「김삿갓 한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문학논집』 51집, 근역한문학회, 2018, 9-34면.
- 심경호,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 편제 상황」, 『동양고전연구』 80집, 동양고전학회, 2020, 9-65면.
- 윤선영, 「조선 시대 과시의 사서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 윤선영, 「한중 과거 經義文 비교 : 조선 시대 四書疑, 五經義와 명청대 八股文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83집, 한국한문학회, 2021, 149- 182면.
-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 이상욱, 「조선후기 科策 참고서의 작법 요령 : 『策型』과 『駢儷華藻』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2집, 열상고전연구회, 2020, 459-495면.
- 이상욱, 「조선후기 과부 참고서와 공부 방법 : 『騷賦策芳』과 『小大由之』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72집, 대동한문학회, 2022, 5-40면.
- 張獻忠, 「明中后期科舉考試用書의 出版」, 『社會科學輯刊』, 南開大學歷史學院, 2010年 1期, 127-133頁.

Abstract

The current status and meaning of data related to the Gwageo of Joseon Dynasty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Kim, Kwangnyeon(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In this paper,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of gwageo-related data in the Joseon Dynasty and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I researched and listed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introduced materials worth researching by subject.

As a result of the survey, about 200 gwageo-related data were identified among about 86,000 ancient documents own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National Library's collection of flaunting materials covers various types, from individual works to yucho, and among them, the anthology of Gwasi(科詩), Gwachaek(科策), Gwabu(科賦), and Gwapyo(科表) was significant. And most of the data were manuscripts.

Yongjeongdaedae, a Gwachaek anthologies, is considered to be of great value for research as it collects only excellent Gwachaeks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Gwasibunun is a Gwasi anthologies that can understand the trends of Gwasi in the late Joseon Dynasty. Dongui, a collection of Saseoui(四書疑), has a unique significance as comments on the answer are recorded outside the box along with Saseoui questions and answer materials. Jungbang contains very detailed information related to the test. Yuchojip, Gwajeong, categorizes various cod by subject. Yejuissigwajerok is a material that can examine the learning and transmission of gwageo within a family, with its biggest characteristic that the compiler is clear and has a preface.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enrich the Gwageo of Joseon Dynasty through a multifaceted approach to ostentatious materials.

Key words: Gwasi(科詩), Gwageo(科舉), Gwamunseonjip(科文選集, Collections of articles written as Gwageo answer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Yongjeongdaedae(龍庭大對), Gwasibunun(科詩分韻), Dongui(東疑), Gwajeong(科程), Jungbang(衆芳), Yejuissigwajerok(驪州李氏科第錄).